

지역 매아리

고창군·어민단체 대표 해상풍력실증단지 공동대응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관련, 고창군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선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유기상 군수 주재로 '해상풍력 대응방안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략회의에선 관련부서 공무원들 비롯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관련 어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가칭' 고창군 해상풍력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민·관이 가진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고창군의 발전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 있는 목소리를 내 실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고창지역 갯벌과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일자 유형예측조사 중 관내 갯벌과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앞서 보건소는 구시포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심원갯벌 등을 대상으로 갯벌, 해수, 어패류 등을 채취해 매주 1회 유형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산물을 날로 섭취하거나 상처 난 사람이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급성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24시간 이내에 피부병변이 발생한다.

피부병변은 주로 다리에서 시작되며 발진, 부종이 나타난 후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해 점차 썩는 병변으로 진행되고 치사율은 40~50%다.

예방수칙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서 먹기(85도 이상 가열)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저장하기 ▲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 ▲어패류를 조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하기 등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도민체전 한 달 앞으로

고창군,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모두 완료... 군내 곳곳 차선도색 등 새단장

도민들의 체육 대축전인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회 개최지인 고창군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북도민체전 개막을 한 달여 남겨둔 가운데, 도내 14개 시군의 1만여 명에 달하는 선수와 임원, 응원단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제 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는 다음달 5월10~12일(3일간) 고창공설운동장 등 고창군 일원에서 열린다.

군은 지난 2001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 전라북도민체육대회를 열며 쌓은 노하우를 총결집해 역대 최고의 대회를 치러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고창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문화체육 ▲정정당당 스포츠 정신으로 하나되는 전북도민 화합체전 ▲오는사람 행복하고, 맞이하는 사람 행복한 행복체전을 목표로 정하고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고창군은 성공적인 도민체육대회를 위해 11억을 들여 각 종목별경기장 개보수를 모두 완료했다.

특히 도로경기(자전거, 롤러)를 위해 국가지원지방도를 전면 보수중에 있으며, 고창군 곳곳의 도로도 차선도색 등을 통해 깔끔한 모습으로 단장했다.



고창군이 전북도민체전 개막을 한 달여 남겨둔 가운데 도내 14개 시군의 1만여 명에 달하는 선수와 임원, 응원단을 맞을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대회기간 고창을 밝힐 성화는 한 반도 첫 수도를 밝히는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고창에서 영원하리'라는 주제로 5월 9일 도산리 고인돌에서 채화돼 고창군 일원을 거쳐 다음날인 10일날 공설운동장에 성대하게 점화된다.

또한 개회식주제공연으로 전라도 새로운 1000년을 이 곳 고창에서 시작한다는 퍼포먼스로 주민 400여명이 출연하여 대규모 공연을 할 계획이다. 식후 행사로는 인기 가수 축하

공연과 EDM파티로 대회를 더욱 빛낸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를 통해 고창군이 스포츠 수도로의 대도약이 될 것이다"며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내일 '전주MBC라디오 특집생방송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동리국악당에서 열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일과 육아 함께 꿈꾸는 행복한 정읍

정읍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가공모 주거지원형 최종 선정

정읍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공모에서 주거지원형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4년 연속 이뤄낸 쾌거다. 이미 선정돼 추진 중인 3개 사업과 함께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은 <행복한 삶터 '연지팍'- 일과육아를 함께 꿈꾸다>이다.

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85억원과 도비 1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업은 크게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특화마을조성 ▲주민주도의 문화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유진섭 시장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매우 높아 사업의 성공을 기대한다"며 "이미 선정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원도심에 대한 체계적인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더불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새롭게 단장

정읍시가 정읍체육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새롭게 정비했다.

시는 2억원을 들여 포장 노면 교체와 주변 편의시설 부족 등을 개선하고 12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4천㎡와 휴게시설 바닥을 정비하고 그늘막 33㎡, 피크닉테이블 3개소, 등자 6개소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인라인스케이트장과 편의시설 바닥을 동일한 재질로 재장비해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고 화장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그늘막을 확충하고 주변 여건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인라인스케이트를 비롯해 롤러스케이트와 킥보드, 트라이더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06년 7월 준공, 2012년 5월 아스콘 포장하여 사용되어 왔다.

시 관계자는 "정읍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보수·보강하겠다"며 "체육공원을 찾는 시민과 생활체육인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천혜의 빼어난 자연경관 벗삼아

부안마실길 걷기행사 내달 4일 개최

부안에서 천혜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벗삼아 마실길을 탐방 할 수 있는 걷기행사가 열린다.

부안군은 5월 4일 '제7회 부안마실길 걷기행사'가 부안 변산마실길 5코스인 숲섬(전북학생해양수련원 운동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부안 대표축제인 마실축제 기간 내에 개최되는 이 행사는 자연보호부안군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의 도보마니아는 물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를 비롯해 군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여하여 함께 마실길을 탐방할 예정이다.

특히 걷기행사가 열리는 부안변산 마실길 5코스는 해안 바닷가를 따라 조성된 약 6km(1시간 30분 소요) 구간에 이르는 바닷길로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노을 풍경을 만끽하며,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 중 하나인 숲섬의 정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중간 중간 숲길이 연결되어 있어 온 가족이 느긋하게 걸으며 가족간의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식전행사로 에어로빅 운동 공연과 통기타 콘서트도 열고, 걷기 체험 구간에는 숲섬지길 해설, 소원패 달기와 목마를 씹터도 운영되며, 행사 종점부에서는 특산물 판매장과 인주자를 위한 기념품 증정부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인 환경과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탐방객에게 색다른 체험길이 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전국 도보여행자와 가족단위 탐방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이 2023년 부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붐 조성 및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28일까지 집중홍보를 펼친다.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집중 홍보

부안군은 2023년 부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붐 조성 및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28일까지 집중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지난 6일 보안면민의 날과 개안동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10일 변산면, 12일 하서면, 13일 동진·백산면, 25일 진서면 등 면민의 날과 28일 전북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부안군의 날 행사에 맞춰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부안군은 잼버리 개요 등이 담긴 잼버리 포스터 및 전단지 배부,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시용

텐트 및 포토존 설치, 롤렛 이벤트 등을 통해 군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부안이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임을 실감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채연길 새만금잼버리과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2023년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군민들이 체감하고, 군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잼버리 붐을 조성하고,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강산 뽕주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TEL : 063-584-9900
www.gansanwine.com